

자금리용에서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정 광 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령도밑에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하고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며 모든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금리용에서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는것은 강성국가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원만히 진행하자면 자금이 있어야 한다. 기업체들은 자금이 있어야 강성국가건설에 필요한 재정적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업체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자금과 자체로 조성한 자금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진행한다.

기업체들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주어진 자금으로 더 많은 생산과 건설을 진행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그것은 현실발전의 요구로부터 국가자금이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큰 대상들에 주로 리용되며 기관, 기업소들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로 조성리용하여야 할 사정과 관련된다.

그렇다고 하여 기업체들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기업소들이 자체로 보장하라는것은 아니다. 기업체가 조업할 당시 고정재산조성과 류동자금을 비롯하여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가 보장해준다.

기업체경영활동과정에는 고정재산을 보수하고 현대적으로 갱신하는 문제, 류동재산을 끊임없이 확보해야 할 문제, 종업원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나선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수요를

국가가 다 보장해줄수 없다. 이것은 자금수요충족에서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여나갈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영기업소들을 비롯한 기업체들은 독립채산제원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자체로 맞추어나가면서 경영활동을 진행한다. 따라서 기업체적범위에서 제기되는 자금을 자체로 해결하는것은 독립채산제원칙에도 부합된다.

자금리용에서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인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자금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주어진 자금으로 더 많은 생산과 건설을 진행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자금리용에서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바로 리용하는것이다.

감가상각금은 기업소에 적립되어 고정재산의 대보수와 설비현대화에 리용된다.

현시기 감가상각금리용에서 중요한것은 설비갱신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것이다.

설비를 현대적으로 갱신하는것은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이며 중심적인 사업이다.

감가상각금에 의한 설비갱신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설비갱신을 자기가 책임진다는 주인다운 립장에 확고히 서서 이 사업을 밀고나가야 한다.

설비갱신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해당 기업체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기업체들에서는 인민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할데 대한 당의 요구와 감가상각금을 자체로 적립하고 리용하여 설비갱신을 자체로 하

도록 한 국가적조치의 정당성을 정확히 알고 설비갱신사업을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 구입한 설비에 대해서는 설비갱신을 적극 추진할수 있도록 감가상각금적립리용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감가상각금에 의한 설비갱신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자면 우선 설비의 내용년한을 물리적마멸을 기본으로 하여 정하면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도덕적마멸기간을 과학적으로 예견하여 정하여야 한다.

대보수주기는 설비의 내용년한에 영향을 주는 중요요인이다. 여러차례의 대보수를 하여 원래의 기술적성능을 회복하여 쓰는것은 많은 대보수자금을 들여 낡은 기술을 유지하는것으로 하여 기술발전에 커다란 저해를 준다.

야금로나 소성로와 같이 주기적으로 내화물을 교체해야 하는 설비를 제외한 모든 설비들에 대해서는 대보수회수를 줄이고 내용년한을 짧게 하며 그 기간에 설비를 만부하로 돌려 해당 설비의 시초값을 회수하도록 하는것이 합리적이다.

그러자면 여러가지 방법을 받아들여 될수록 빨리 설비값을 회수하고 새로운 설비로 바꾸는것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감가상각금에 의한 설비갱신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자면 또한 설비갱신에 대한 보장사업계획과 계약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별적기업체들에서 설비나 공정들을 갱신하는 사업은 불편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인민경제전반에서의 갱신은 끊임없는련속과정으로 나타나며 해마다 적립되는 감가상각금의 규모만큼 낡고 뒤떨어진 설비는 물러나고 생산에 새로운 고정재산이 인입된다.

그러므로 해마다 생산적기본건설에 대한 총투자는 새로운 대상건설에 대한 투자

몫과 한해에 적립되는 감가상각금몫을 합한 규모로 타산되어야 하며 기본건설에 필요한 자재, 설비, 로력의 총적규모도 그에 대응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생산적기본건설에 보장해줄 자재와 부분품, 규격설비와 대상설비, 로력의 총적규모를 지표별로 정확히 타산하는것이다.

설비갱신을 기업체들에서 자체로 조직하는데 맞게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정확히 맞물려 보장하기 위한 계획, 계약체계를 바로세우고 합리적인 실무절차와 방법을 연구도입하여야 한다.

감가상각금에 의한 설비갱신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자면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업체들에서 자체의 과학기술연구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설제심의체계를 바로세워야 한다.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설비갱신의 기본력량은 해당기업체의 기술연구집단이다.

오늘의 설비갱신은 기존기술그대로의 갱신이 아니라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갱신이다.

자체의 재능있는 과학기술력량이 없이는 아무리 자금이 많고 물자를 충분히 보장한다고 하여도 설비갱신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여러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망라하여 새로운 첨단기술, 생산방법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생산설비나 공정을 능숙하게 설계하며 개조할수 있는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설비갱신의 기본조건이며 방도이다. 이것은 고급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정보산업시대의 필수적요구이며 지식경제건설의 지름길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이와 함께 설제의 과학성과 경제적효과성을 정확히 심의결정할수 있도록 엄격한

설계심의체계를 세워야 한다.

현대적인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모든 건설물을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 로동당시대의 훌륭한 창조물로 건설할수 있는것은 설계의 과학성과 경제적효과성을 정확히 심의 결정하는 체계를 세운 결과이다.

현시기 감가상각금리용에서는 그것을 류동자금원천으로 하는것이 합리적이다.

감가상각금은 기업체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일데 대한 요구로부터 국가에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생산물의 원가에 포함시켜 기업소에 적립하고 기본건설과 대보수, 기술혁신에 리용된다.

그런데 이 자금이 자기 용도에 쓰일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 유희상태의 자금예비로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감가상각금을 류동자금원천으로 돌려쓸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기업체들에서 적은 자금으로 더 많은 생산과 건설을 하자면 일시적으로 높고있는 감가상각금을 류동자금으로 돌려쓰는것이 합리적이다.

자금리용에서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류동자금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이다.

류동자금은 기업체경영활동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어있으며 그의 절약적이며 합리적리용은 화폐자금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절약은 곧 생산이다.

기업체류동자금리용의 기본핵은 그 회전이다. 류동자금회전을 촉진시키면 적은 자금으로 보다 많은 생산물운동을 매개할수 있으며 따라서 절약된 자금을 생산에 돌릴수 있다. 뿐만아니라 류동자금이 적립단계로부터 제품생산과 실현의 재생산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회전하게 함으로써 기업관리전반에 작용하게 된다.

기업체들에서 류동자금을 더 빨리 회전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류동자금보유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기업체경영자금에서 류동자금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원료, 자재를 쌓아두거나 필요한것이라 하여 지나치게 많이 받아다가 오래 묵여두면 거기에 자금이 쓸데없이 잠겨있어 체화, 사장을 가져오며 그만큼 자금회전이 떠지게 된다.

기업체들에서 원료, 자재를 비롯한 류동재산을 꼭 필요한것만큼 보유기준범위내에서 가지고있도록 하자면 자재공급의 종합성과 시기성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원료, 자재를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며 기업체들이 원료, 자재를 계획범위안에서 꼭 필요한것만큼 사들이도록 하고 필요없거나 남는 자재들은 물자교류를 통하여 다른 기업체들에 넘겨주도록 하는것이 합리적이다.

물자교류를 통하여 필요한 자재를 바꾸어 쓰게 되면 필요없이 자금이 사장되는 현상을 없애고 이러저러한 요인으로 부족되는 자재를 제때에 보충해줌으로써 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할수 있으며 류동자금회전에도 긍정적인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체들에서 류동자금을 더 빨리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미완성품과 반제품의 보유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기업체들에서 미완성품과 반제품을 보유기준보다 더 많이 가지고있으면 거기에 자금이 그만큼 잠겨있게 되어 류동자금회전이 떠진다.

미완성품과 반제품을 보유기준이상 가지고있지 않도록 하자면 기업체안의 모든 생산단위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생산조직을 잘하여 미완성품과 반제품흐름의 련속성을 보장하고 그것들이 개별적공정들에 오래 머물러있는 현상을 없애야 하며 생산주기를 극력 줄이고 설비리용률과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체들에서 류동자금을 더 빨리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생산된 제품을 빨리 판매하여야 한다.

제품의 판매실현은 류동자금회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요인이다. 그것은 완제품을 체화, 사장시키지 않고 빨리 판매할수록 거기에 잠겨있는 류동자금이 그만큼 빨리 회수되기때문이다.

생산된 제품을 빨리 판매하려면 수송조

직을 짜고들어 제품을 계획에 예견된대로 제때에 수요자에게 보내야 하며 수요자에게 보낸 제품의 대금을 빨리 받아들이고 새로 만든 제품의 가격을 제때에 제정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자금리용에서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여 강성국가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할것이다.